

08.7.19-20일에 걸쳐 전국무용부장회의가 진행되었다



지난 7월 19일부터 20일에 걸쳐 오사카의 마이연구소와 러관 하나노이(花乃井)에서 제 17기 제2차 전국무용부장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는 문예동중앙 김향순부장, 임수향 부장을 비롯한 문예동중앙무용부 부위원, 각 지부무용부장 및 무용부장대리 계 12명이 참가하였다. 첫날째 오후 1시에 집합한 회의 참가자들은 각 지부정형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맨션참으로 보고한 오사카지부 리송영무용부장은 두달에 한번 부모임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지난 7월 13일 무용단<구슬>이 조·한·일의 문화교류공연 『코리아의舞と和の響きIII』에 800여명의 관람자를 동원하여 대성황리에 끝났다고 하였다. 현재 맹원이 불어난 청년조와 함께 내년 5월에 진행되는 《무용의 밤》 준비를 시작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교토지부 김명미무용부장대리(서화순무용부장)는 지부총년모임, 학교행사에 출연하면서 너맹조의 활동이 활발하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올해 4월에 너맹조에 젊은 어머니들이 맹원으로 속하여 더욱 기세가 높아졌으며 청년조도 맹원 5명을 확보하고 새로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효고지부 김경애무용부장은 정상적인 연습을 진행하고있으며 가무단의 무용수가 적어서 공연의뢰가 많지만 여러 공연에 출연하면서 활발히 활동하고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내년 11월에 문예동효고에서 종합예술공연을 예정한다고 발표하였다.



맹원수가 가장 많은 도카이지부 김청자무용부장은 청년조 20명, 성인조 20명이 여러 공연에 출연하는 등 정상적으로 활동하고있다고 하면서 내년 진행되는 문예동경연대회준비를 다그친다고 보고하였다.

가나가와지부는 장애림부장을 대신하여 윤수지 중앙부위원이 보고하였다. 가나가와지부는 맹원수 10명중 5명이 여러 공연에 출연하면서 실지로 활발히 활동하고있으나 앞으로 청년조를 잘 꾸리고 활성화해야 할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였다.

니시도쿄지부 리선옥무용부장과 도쿄지부 김선희무용부장을 대신하여 안덕희중앙부위원이 보고하였다.

니시도쿄지부는 최근 활동을 정상적으로 운영 못하고 있으며 조동 등 맹원수가 줄어들어 활동을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시급히 현재 맹원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건할것을 보고하였다.

도쿄지부는 12월에 단독으로 문예동무용부 정기대회를 가져 새로운 무용부장을 중심으로 사업할것이며 새로 공연조직부를 내오며 청년조에서 무용단을 꾸릴 예정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그러기 위하여 청년조를 강화하고 맹원을 불꾸겠다고 결의하였다.

히로시마지부 리량숙무용부장과 규슈지부 문향란무용부장은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바 히로시마지부는 정상적인 성인조와 청년조의 활동을 통해 이 2,3년동안에 맹원수가 약 3배로 불어나 현재 22명 망라되어있다고 성과를 보고하였다. 앞으로 더많은 맹원들이 일상적으로 연습에 참가하도록 부모임을 정상화해나가겠다고 하였다. 규슈지부는 2년간 활동을 못하고있었음으로 8월부터 사업을 재정리하여 다시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참가자들은 제6차 무용경연대회에 대한 인식토론을 통해서 경연대회에 관한 견해일치를 보고 경연대회 조직요강을 작성협의하였다.



지방별로 진행된 무용강습



작년에 이어 문예동 무용부는 동서지방으로 나누어 제6차 문예동 무용경연대회를 앞두고 한삼춤 기본동작 강습을 진행하였다.

7월 6일에 진행된 서일본강습에는 36명(오사카에서 15명, 효고에서 11명, 교토에서 7명, 아이찌에서 4명)이 모여 금강산가극단 박선미강사의 지도를 받았다.

동일본지방에서는 7월 13일에 진행하여 14명(도쿄에서 6명, 니시도쿄에서 4명, 가나가와에서 4명)이 모여 강습하였다. (사진은 서일본지방강습에서 찍은것입니다.)



강습에 참가해서
 윤수지
 오래간만에 무용강습에서 땀을 흘린다니 따라갈수 있는가고 불안이었습니다. 한삼춤을 처음으로 배워보았으나 《동(動)》 속에 《정(靜)》이 있고 《정(靜)》 속에 《동(動)》이 있는 우리 조선무용의 특징이 잘 나와있어서 조선무용의 맛을 잘 느낄수 있었습니다.

꽃보라

문예동중앙 무용부에서 내은 주문제 상점입니다.
 웨이라의 수건, 코-치의 손가방, 지갑 등 할인합니다.
 우선 상담전화를 기다립니다. 090-6922-8293 안덕희앞으로 전화주십시오.